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은 7월 4-5일(목, 금) 이틀 동안 “마루야마 마사오와 자유주의: 냉전 시대를 산 지식인의 사상과 행동”이라는 주제로 본원 1층 강당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마루야마 마사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대표적인 정치학자이자 지식인 및 사상가로서, 흔히 ‘학계의 천황’으로 불리웠습니다. 그는 일본의 군국주의와 파시즘을 신랄하게 비판했으며, 일본 사회의 자유와 민주화를 위해서 목소리를 높였던 양심적인 지식인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회적으로 과감하게 발언하고 행동하는 ‘사회적 지식인’으로서의 면모에 주목했으며, 특히 냉전 시대를 치열하게 살았던 ‘자유주의자’로서의 사상과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 하였습니다. 학술회의는 마루야마 마사오에게 직접 배웠던 한국과 일본의 제자들 및 두 나라의 연구자들이, 모처럼 한 자리에 모여서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후 일본 사회와 마루야마 마사오의 영향력에 대한 깊이 있는 담론이 오가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함재봉 원장의 환영사를 필두로, 일본측의 원로학자인 호세이 대학 이이다 타이조 명예교수의 개회사 그리고 이흥구 전 국무총리의 축사가 이어지며 마루야마 마사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외국어 대학교 노병호 교수, 고려대학교 박홍규 교수, 아산정책연구원 김석근 선임연구위원, 도쿄대학 카루베 타다시 교수, 규슈대학 시미즈 야스히사 교수, 수도대학도쿄 코노 유리 교수, 국민대학교 김영작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김홍우 명예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박충석 명예교수 그리고 고려대학교 최상용 명예교수 등과 같이 마루야마 마사오와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한일 양측 전문가들이 모여 그의 사상에 대한 유익한 담론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회의 둘째 날인 7월 5일 금요일 오전에는 김석근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우리말로 번역한 <마루야마 마사오: 주체적 작위, 파시즘, 그리고 시민사회> (고바야시 마사야 엮음)의 출판기념회가 열렸습니다. 이 책은 치바대학의 고바야시 마사야 교수가 편집했으며, 여덟 명의 학자들이 공공철학 내지 커뮤니티애니즘(공동체주의)의 관점에서 마루야마 마사오를 바라보고 재해석한 글들을 모은 것입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지금까지 냉전자유주의 시리즈를 통해서 20세기의 대표적인 자유주의 사상가 이사야 벌린, 마이클 오크숏,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사상을 조명해 보았습니다. 그에 뒤이은 마루야마 마사오 회의는, 현재 ‘보수화’ 및 ‘우경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현대 일본 사회에 대한 비판적 조명이라는 의미와 함께 여전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많은 시사를 던져준 의미있는 학술회의였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글들은 내용을 보완, 정리하여 책으로 출판될 예정입니다.